

국내외 건강도시 유형분류 및 발전전략

남은우, 문지영*, 고광욱**

/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고신대 의학부 예방의학교실

목적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를 조사하여, 이들 건강도시 사업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음. 건강도시 사업 유형분류를 통하여, 건강도시 발전 방안 개발 및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방법 : 1) 건강도시 유형조사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38개 회원 중 2009년 3월 6일 임시회에 참석한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미참석 도시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4월 12까지 메일조사 방법에 의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을 하지 않은 도시에는 전화로 설문조사 협조를 의뢰함. 또한 회원도시들의 사업계획서를 입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2) 발전전략 수립 - 국내 건강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발전전략을 개발하였음.

결과 : 1) 건강도시 유형분류 - 건강도시 소재지는 대도시에 47.0%, 중소도시에 31.0% 그리고 22.0%가 농촌지역에 위치함. 건강도시 사업의 71.0%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29.0%는 본 청사에서 추진중임. 건강도시 사업 제안자는 보건소장 41.0%, 시장·군수·구청장 40.0%임. 72.0%의 도시가 시정목표에 건강도시가 포함되어 추진중임. 69.0%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도시가 56%, 수립중인 도시가 19%, 수립하지 않은 도시가 25%임. 자체평가는 56%가 하지 않고 있음. 84%가 시장체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정부로부터의 희망 지원금액은 1억 이상이 50.0%, 10억 이상이 19%였음. 사업예산은 34%가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고 있었고, 66.0%는 일반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음. 건강도시 사업비는 53.0%가 1억 미만 이었고, 1억에서 10억이 29.0%였음. 전문기관 교육 경험은 9%만이 있었음. 97%의 자치단체가 건강도시 포럼 참석 의향을 나타냄.

2) 발전전략 수립 - 국내 건강도시사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점(S)으로는 자발적인 사업으로 시작됨, 자치단체장의

강한 사업 의욕, 국내 건강도시네트워크 활동과 연계 가능, 국외 건강도시네트워크와의 연계(AFHC)였고, 약점(W)으로는 계획 기능 약함, 프로파일 갖고 있지 않은 도시 많음. 사업의욕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사업 추진, 자체평가 기능 약함으로 나타남. 기회요인(O)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의지(예산지원, 시상제도 등),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지원, 건강증진기금 활용 가능,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위협요인(T)에는 전담 부서 부재, 사업 예산 부족, 건강도시사업 관련 전문지식 부족, 사업관련 교육 기회 부족으로 분석됨.

결론 : 국내 건강도시의 유형은 소재지별(대도시형 47.0%, 중소도시형 31.0%, 농촌형 22.0%), 사업추진별(보건소 추진형 71.0%, 본청사 추진형 29.0%), 계획유무별(계획형 75.0%, 무계획형 25.0%), 평가유무별(평가형 44.0%, 무평가형 56%), 사업예산별(건강증진사업형 34%, 일반사업형 66.0%), 세부사업계획별(개인 25.0%, 도시환경 75.0%)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 발전전략으로는 SWOT분석에 따라 ST전략으로는 기획 및 평가 기능 강화, 보건복지가족부의 시상제도 도입, SO전략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의욕 고취, 건강도시 네트워크 기능 강화, WO전략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기회 확대, 자치단체에 전담부서 설치 권장, WT전략으로는 중앙정부 예산의 확보, 정부 예산 지원 시 전담부서 설치 도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건강증진연구과제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됨.